

THE LITTLE ANGELS

리틀엔젤스예술단 창단 60주년

천사들의 비상

예술로 세계로 미래로

2022. 5.28 (토) 오후 | 2시 | 6시 |

유니버설아트센터

춤추고 노래하는 평화의 천사

리틀엔젤스예술단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1962년 창단되었으며, 8세부터 15세까지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5년 9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위한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50여 개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민간외교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60여개국을 순방하며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소개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2010년에는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UN참전국 22개국을 순회하며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임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문화 위상을 높인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4차례 수상하였습니다.

2022년 리틀엔젤스예술단은 창단60주년을 맞이하여 '예술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배정해 예술감독과 김덕수 연출을 초빙하여 신작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양한 레퍼토리, 새로운 무대영상, 그리고 국악창작그룹 '양상블 시나위'의 라이브 연주로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친선과 우정의 외교사절 화합과 평화의 꼬마대사

"너희 작은 천사들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무색하게 되었구나" -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

"환상적인 실력과 매력을 겸비했구나" - 엘리자베스 영국여왕 -

"내 생애 이런 환상적인 공연은 처음이다!" - 구소련 영부인 라이사여사 -

"평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무엇보다 리틀엔젤스의 아름다운 공연에 감동" - 세네갈 마키 살 대통령 -

"리틀엔젤스의 모든 공연이 너무나 훌륭했고, 계속 보고싶다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 네팔 수상 -





1965. 9
최초의 세계순회
공연인 미국 게이츠
버그 아이제하워
대통령을 위한
특별공연



1970. 12
미국 백악관 이스트룸
공연을 마치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찬사를
받는 리틀엔젤스



1971. 11
영국 왕실 어전
공연 관람 후
리틀엔젤스를 접견
하는 엘리자베스 여왕



1971. 12
세계순회공연을
마치고 청와대 귀국
보고 후 다과를 베풀어
주신 박정희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1973. 10
터키공화국 건국50
주년 기념 특별초청
공연후 코루트크
대통령 예방



1974. 8
말레이시아 팡실
특별공연 후
국왕부처 접견



1974. 11
이태리 레오네
대통령 예방



1974. 11
인도 순회공연 중
인디라 간디
수상관저에 초청을
받은 리틀엔젤스



1975. 8
과테말라 순회공연 중
라우제르 가르시아
대통령 부처와 함께



1975. 8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부터 특별상을 수여
받은 리틀엔젤스



1975. 10
파나마 대통령
관저에서 라카스
대통령과 함께



1985. 5
일본 나가소네
에스히로 총리관저를
예방한 리틀엔젤스



1987. 6
제5차 세계평화정상
회의 공연 후
단원들을 격려하시는
문선명 총재



1992. 11
노태우 대통령 초청
러시아 보리스 옐친
대통령 방한시 청와대
특별공연



1994. 8
한국, 대만민간외교에
견인자 역할을 한
리틀엔젤스의
이동후이 총동 관저
예방



1998. 5
평양 만경대 학생
소년공정 공연 후
만경대학생 소년
예술단 학생들과
리틀엔젤스



2000. 10
제3차 ASEM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가한 각종
정상들과 함께



2009. 10
카타르도하
특별공연 후
하마드 국왕 접견



2010. 8
볼리비아 대통령을
위한 정상만찬



2010. 9
한국예술단 최초로
프랑스 파리 '말레
데 콩그레 극장'에서
3,700석을 가득
메운 관객



2010. 10
그리스 카롤로스
파풀리아스(Karolos
Papoulias) 대통령을
방문한 리틀엔젤스



2011. 2
네팔 람비라나드브
대통령 예방



2011. 9
미국 뉴욕 9.11테러
10주년 기념
리틀엔젤스
UN초청공연



2013. 7
한국전쟁휴전협정
60주년기념행사
미국워싱턴D.C.
(오바마대통령참석)



2018. 1
세네갈 다카르 공연 후
마키 살 대통령과
기념촬영



2019. 7
콜롬비아 독립
200주년 리틀엔젤스
한글 우호공연



2022. 1
두바이 EXPO
'한국의 날'
기념 공연

Repertoire

프로그램
1부

Part 1



처녀총각 | Spring Time

창작 무용으로 리틀엔젤스에서만 볼 수 있는 무용이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싱그러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도리지를 캐러 집을 나온 처녀와 나무하러 싸리문을 나선 총각의 만남을 재미있게 엮어 표현했는데 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봄의 모습을 재미있게 풍자한 이 작품은 작고 어린 단원들의 아기자기한 무용을 보며 한국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Traditionally, when spring comes to Korea, one can find the girls spending their days in the field picking wild flowers while the boys go to the hillside to gather firewood. Frequently, they have been known to meet in the countryside which, blanketed with warm sunshine and gentle winds, would find them laughing and dancing together, caught up in the spirit of a joyful spring in the making.



궁

궁중정재무 중 춘앵천과 같은 한심춤 또는 신무용에서의 화관무 등 기존에 주어지던 한심춤 동작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현대적 해석으로 신선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We have taken traditional Hansam movements (using long flowing extended sleeves) from the traditional Korean court dances that are danced with Hansam, including the Chun-aeng Dance, and the Flower Crown Dance which is part of the Shin Muyong (new dances) from the early 20th century, and arranged them in a new way to create a fresh contemporary expression.



부채춤

예로부터 선비들이 수묵화를 그리고 족흥시를 써서 정다운 친구에게 청표로 주던 부채, 오색 고운 꽃그림과 화려한 공작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하늘하늘 닦아내는 치맛자랑 시어로 부채를 폼다 접기를 반복하여 날랜 마음 사이로 빙글빙글 돌며 휘돌아가기를 반복하는 부채춤은 아름다운 의상과 어우러져 리틀엔젤스의 가장 인기 레퍼토리의 하나이다. 지난 60년간 세계를 누비며 세계 정상에 비견할 관객들의 갈채를 이끌어 내는 작품이다.

The fan, symbol of Oriental delicacy and exquisiteness, plays a prominent part in the traditional way of life of the Korean people. The Fan dance, therefore, is one of the most popular dances in Korean folk literature. Opening and closing the fan expresses joy and excitement and the dancers convey this through their deceptively simple and beautifully symmetrical movements.

Repertoire



시집가는날 | Wedding Day

가문(家門)의 혈통(血統)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식 된 도리로 생각되어온 우리나라에서는 조혼(早婚)의 풍습이 널리 성행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꼬마 신랑과 나이든 신부의 조혼 풍습을 무대 위에 코믹하게 재현하였다. 이제는 사라진 풍속을 소재로 한편의 드라마처럼 꾸민 시집가는 날은 한 폭의 풍속도(風俗圖)를 보는 것 같은 재미있는 작품이다.

In ancient times Korean boys and girls were sometimes married when they were little more than children. Moreover, there was frequently a wide difference in the ages of the happy couple, so that a groom of say, twelve years, might well be the called upon to take a bride of more than twice his years. Needless to say, the lady in such a case was of necessity, a far more a harried mother than a blushing bride. Let us now see what might happen on the occasion of such a ludicrous wedding.



강강수월래 | Moon Festival

임진왜란 때 왜적을 막아내기 위하여 정월 대보름 밤에 모여 춤을 추고 노래 하던 강강수월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작품이다. 여성을 상징하는 푸르른 달빛 아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리듬감 있게 원무를 추는 강강수월래는 정음적으로 제약이 많았던 여성들이 추석 보름날 마음껏 자신을 표출할 수 있었던 여성 민속놀이이자 침략과 수난에 굴복하지 않는 여성들의 얼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Legend has it that this dance, "The Moon Festival," was once performed on a moonlit night to block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rough his same dance, women in the Joseon Dynasty sublimated their grief. All elements of the song, the movements, the costumes, even the set shown by the company in this work, overflow with metaphorical lyricism. It is a masterpiece of the Korean spirit that desires to defend the fatherland.



가야금병창 | Folk Singing with Gayageum

가야가 신라에게 패망했을 때 악성(樂聖)우륵이 신라로 전했다는 가야금은, 서양음악에서 바이올린이 악기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것처럼 가야금은 한국음악에서 악기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락은 섬세하고 변화무쌍하며 그 농현(弄絃)은 오묘하고 여운(余韻)은 듣는 사람을 선경(仙境)으로 이끄는데 단원들이 부르는 민요와 곁들여지며 리듬엔젤스만의 독특한 분위기로 감동을 준다.

The musical instrument, the Gayageum, came down from the Kaya-Kingdom to the Shilla Dynasty. Its sound is delicate and varied, and the color of its voice is profound and mysterious. The Little Angels' Gayageum performance includes both contemporary songs and traditional folk tunes.



북춤 | Drum Dance

우리 나라의 북춤은 세계 각국에서 큰 갈채를 받는 춤으로써 리듬엔젤스의 북춤은 여섯 개의 북을 사용하는 육고무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리듬엔젤스 무대에서만 볼 수 있다. 삼면의 틀 위에 여섯 개의 북이 어우러진 육고무의 가락은 다소름 장단을 시작으로 마지막 휘모리 장단까지 격동있는 강약의 변화를 통해 한국적인 가락의 진수를 보여준다. 앞은 북과 선 북의 휘몰아치는 북 장단은 북춤이 진행될수록 점차 고조되는 긴장감과 흥으로 관객을 무대속으로 끌어들이며 일사불란한 총사위와 연주로 관객을 압도하는 매력을 갖춘 역동적인 작품이다.

This dance depicts the inner conflicts of a monk who has allowed himself to stray from the lofty principles and strict commandments of Buddha, deftly characterizing, by its attitudes and movements, the eternal struggle between the world of the flesh and the world of the spirit. Each dancer performs this number with a set of six drums.



프로그램
2부

Part 2

장고 | Janggu

60~70년도 리틀엔젤스에서 활동하던 김덕수가 60주년을 기념하여 새롭게 구성된 장구놀이반은 실장고와 무속장단을 새롭게 변화시켜 색다른 시각과 청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고 합주곡이다. 활기 넘치는 장단과 채편, 궁편의 엇갈리는 묘미는 보는 사람의 흥을 한층 돋우어 주며, 아이들이 장고를 가지고 노는 모습은 여기 오신 모두가 마음을 열고 축제의 장을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This newly constituted work, featuring a new look and sound for dancing with the janggu, or hourglass drum with a traditional Korean music ensemble, was added to the repertoire to mark 60 years since Master Artist Kim Deok-gu began performing with the Little Angels in the 1960s. Watching the young dancers evoking a wide variety of sounds from the janggu as they strike it with the bamboo rod and the mallet while dancing creates a vibrant and compelling festival atmosphere that will delight and entrance.



꼭두각시 | Doll Dance

동서(東西)를 막론하고 인형을 소재로 한 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꼭두각시놀이'라는 인형극은 민중의 오락으로 오래 전부터 개승되어왔는데 꼭두각시는 '박첨지놀이'라는 민속 인형극에 나오는 여자 인형을 일컫는다. 리틀엔젤스의 가장 어린 꼭두들의 아기자기한 재롱과 귀여운 몸짓은 사랑스럽고 영롱하여 세계 어디를 가나 큰 박수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Following the ancient custom in Korea, the New Year, by lunar calendar, is the time of highest joy and festivity. One of the traditional games during this period is the Doll Dance. Each participant makes up a beautiful Korean doll and manipulates this doll, puppet-fashion, in various movements of the dance. Here the Little Angels become the dolls and give their interpretation of this ancient doll dance of the New Year.



바라다 | Barada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랑과 평화의 세상으로 번져 나가야 합니다. 인류가 한 형제이며 세계는 한 가정이라는 평화의 원리로 갈라진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합치점을 찾아 사랑과 평화의 세상으로 인류의 행복한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Love and peace must spread out across this land where we are all living. With the principle of peace which tells us that all of humanity is one global family, we must open a way to a world of love and peace by finding our common ground and striving to harmoniz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설날아침 | Seollal Achim

한국에서는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한다. 설날 아침에 웃어른들(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께 세배인사를 드리고 세뱃돈을 받는 풍속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아이들은 복주머니에 세뱃돈을 넣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불이 온 들판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제기돌치기를 하며 즐겁게 노는 장면을 풍속춤으로 표현하였다. 이 춤을 통하여 잊혀져가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습을 되살려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

In Korea the first day of the Lunar New Year is called "Seollal." On Seollal, it is the custom to offer a bow of respect to your parents and grandparents, and then, they will give you some money to celebrate the New Year. The children put the money in their lucky bags to show off to their friends and celebrate the winter by making snowmen in the snow-covered fields, bouncing a colorful shuttlecock with one foot while hopping on the other, and enjoy other traditional Korean games. With this dance the Little Angels bring back to life some of the colorful customs from their Korean heritage.

공연프로그램

Repertoire



화검 | Hwageom

신라시대 여자화랑인 원화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심신을 수련하던 모습을 검을 이용하여 창작하였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날을 세우는 강인한 정신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Hwageom is a work inspired by the Wonhwa, the young ladies in the Silla Dynasty who were members of the elite class of Hwarang, and their training as they prepared to offer their whole beings, body and soul, to defend the nation. It is a work that shows their spirit of determination to work for a harmonious and peaceful world.



농악 | Farm Dance

리틀엔젤스의 농악은 여름철 모심기 무용을 시작으로 뽕소고, 소고놀이, 상쇠놀이, 열 두발 상모로 이어지는 군무로 익기, 음악, 춤, 연극적 요소가 결합된 민속연희를 재현하였다. 농자(農者)로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을 삼는 한국 민족과 별 수 없는 농악은 단순한 악기와 몸짓, 춤들로 고된 노동에 지친 민중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흥과 신명의 기원제이다.

In autumn, the Korean sky is vast and blue, and the crops are rich and golden. As the long-awaited harvest season nears its end, a holiday spirit prevails throughout the country. Animated and masculine in character, the Farm Dance is an expression of the farmers in joy and thanksgiving. There are four separate movements or acts in this dance, followed by a finale in which all Little Angels perform. The four movements, in sequence of performance, are: - song of the fruitful harvest, festival time, spinning of the hats, and longer than the rainbow.



탈춤 | Mask Dance

민중예능으로 계승, 발전되어온 탈춤은 우리 겨레의 말바닥에 살아 숨쉬는 민중의 에너지와 익살이 감이 살아 숨쉬는 귀중한 유산이다. 탈춤은 현란한 조명과 신명나는 사자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어린이들의 순진무구함이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 깃들인 작품이다.

There are many provincial dances which developed throughout the centuries as a reflection of the traditions and legends which exist in each particular region of Korea. One of the most popular regional dances of the southern section of Korea is the Mask Dance. Habitually, when a native festival is celebrated in a region, the spectacular Mask Dance is included. This dance typifies the humor of life and usually evokes outbursts of laughter. The Mask Dance is animated and fast in tempo, and there is little restraint in character, costume and movement. Masks of all kinds are distinctly made according to the ancient tradition of Korea.



합창

지휘자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단원들이 직접 호흡을 함께하는 연주형태로, 리틀엔젤스의 또 다른 형태의 장르, 주요 레퍼토리는 우리민요와 세계민요로서 리틀엔젤스 특유의 개성 있는 음색과 매력적인 화음이 단연 돋보인다.

Finally, in Chorus, the Little Angels reveal their musical talent by coming together and singing in a chorus accompanied by a conductor. In this act, the company members breathe and sing together as one. Their repertory includes well known universal songs and beautiful tunes from Korea. As they express their desire for the unity of the world, the Little Angels create a lovely harmony and in their personal way.

리틀엔젤스 단원



김소형



김이소



박규희



손이경



양지호



윤에린



임윤영



최민지



한신화



홍연주



곽채림



김규리



김서연



김울비



류승호



민지원



손태인



이예지



이호재



홍서진

리틀엔젤스 단원



김난경



김소희



김지유



김하늘



박가빈



박규연



박서정



양민주



이승연



이지아



장서연



한다운



김민지



김아영



김아영



김연주



배현진



서지희



유서정



윤하나

리틀엔젤스 단원

리틀엔젤스 단원



이루리 이유정 조여은, 최지원 홍서운



김서운 김소리 김재원 김하늘 박솔



박지빈 변세은 손하루 신제아 이서은



이소윤 이연우 전지민 최아원 김현서

리틀엔젤스 단원



송예린 엄소윤 유서현 이지유 임진아



최은채 한혜주 강채원 김세민 김소윤



서재은 신지유 이에린 이지아 정민서

리틀엔젤스예술단



단장 정임순



예술감독 배정혜



연출 김덕수



예술총괄팀장 정은숙



무용지도 관경여



무용지도 안소연



무용지도 이경숙



무용지도 송연정



무용지도 조윤아



무용지도 최예원



합창지도 한문정



합창지도 황성재



합창지도 문현진



합창지도 조선우



가야금지도 정희경

리틀엔젤스 만든 사람들

효정한국문화재단

창시자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
이사장 문훈숙

리틀엔젤스예술단

단장 정임순
예술감독 배정혜
연출 김덕수
예술팀장 정은숙
무용지도 이경숙, 관경여, 안소연, 조윤아, 송연정, 최예원
합창지도 한문정, 황성재, 문현진, 조선우
가야금지도 정희경

대외협력국

상무 노다 고우지
60주년기념사업 이신화

공연사업팀

팀장 이화영
공연사업 김가행, 최유희, 박모애
콘텐츠 제작 김효석
후원회 이신화
제작감독 박혜경
의상감독 손혜순

기획공연 무대기술팀

무대 감독 김중훈
무대 조감독 임채호, 최소영
조명 디자이너 강낙천
조명 프로그래머 김병주
조명 조감독 양가영, 양효정
음향 감독 박재현, 박영진, 이형준
제작 감독 박혜경
의상 감독 손혜순
무대 크루 김태수(팀장), 이부호, 장성훈, 김응원, 한병수, 장대규, 한민우, 황인영, 안향녕
조명 크루 이건혁(팀장), 양상모, 임혜성, 이상민, 황성희
영상제작 마루-M (대표 여 훈)
영상디자인 정은선
영상오퍼레이터 허인철
영상장비 R2D2 (대표 송세현)

유니버설발레단

이사장 문훈숙
예술감독 유병헌
지도위원 유지연, 슬라바 무카메도프, 마야 돔첸코, 진현재, 엄재용
음악실장 오은경
피아니스트 서민정

공연사업 1팀

팀장 김양현
공연사업 윤고은, 오석규, 김지현
사진 김경진
영상 이예린

공연사업 2팀

팀장 서지경
해외·교육 이예홍희
대관사업 박예린
단원관리 아델리아 브란드너
건강관리 임요진

경영지원팀

팀장 라선아
재정관리 오민정, 김정은
인사총무 김아름
시설관리 김신득
수행비서 곽희구

무대기술팀

무대감독 김승철, 최술기, 김중훈, 임채호, 최소영
조명감독 강낙천, 김병주, 양가영, 양효정
음향감독 김성경, 임세나, 김지현, 김혜준
의상감독 정연주, 이예나, 이혜라

라이브 연주팀

앙상블 시나위



장고 김덕수



아쟁 신현식



대금 이성준



피리 윤형욱



가야금 박순아



해금 신현식



양금 정송희



소금 최윤희



타악 송동운



타악 조한민



타악 진승훈

조감 특
김보겸 문진영

앙상블시나위

전통음악의 본을 바탕으로 동시대 아티스트들과 함께 일어버린 정서를 찾는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의교를 꿈꿉니다. '시나위'란 전통음악의 핵심인 장단 속에서 즉흥으로 주고받는 연주를 뜻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시나위의 본질과 사람을 위로하던 우리 음악의 의미를 되찾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진화하고 있는 전통음악'을 창작하고자 다양한 협업과 브랜드 작품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2 KBS 국악대상 단체부문 및 2020년 대한민국예술대전 최우수상 수상하였으며 다양한 장르와의 꾸준한 협업을 통해 여러 창작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객원 무용수

작품 : 농악



12살 서형준



장고 김경민



소고 강리우

작품 : 탈춤



사자 김재민



사자 이동현



사자 노동현



사자 현정석





마^음묘이 고와야 춤이 굿다

마^음묘이 고와야 노래가 굿다

마^음묘이 고와야 얼굴도 굿다



리틀엔젤스예술단
The Little Angels

04991 서울시 광진구 전호대로 664

Tel. 070-7124-1762

Fax. 02-456-6307

www.littleangels.or.kr